

한국발명진흥회, 이구택 신임 회장 선임



한국발명진흥회장에 이구택(59) 포스코 회장이 선임됐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5월 9일, 상임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박광태(현 광주직할시장) 회장 후임에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3년간 한국발명진흥회를 이끌게 된다. 이 회장은 '69년 포항제철(주)에 입사한 뒤 1990년 상무, 92년 전무, 98년 주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3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포스코 회장직 외에도 전경련 비상근 부회장, 한국철강협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특허청 '2005 신지식 특허인' 신청 받는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활용과 창의적 발상으로 이전에 없었던 독특한 물질·첨단기술·방법을 창안하여 산업분야의 자산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발명인, 연구원, 발명 지도교사,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5 신지식 특허인'의 신청을 받는다.

-아래-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5. 5. 11 ~ 7. 31
- 신청방법 : 소정 서식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작성서식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다운로드

2.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 3459-2722)

※ 아래 기관에서도 접수가능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

- 한국학교발명협회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569-6584)

- 한국여성발명협회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538-2710)

- 대한변리사회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3 ☎ 3486-3486)

- 한국신지식특허인협회의회 (137-83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산빌딩 1003호 ☎ 786-4742)

3. 선정인원 : 10명 내외

4. 선정절차

접수 및 1차 심사(한국발명진흥회) 추천

2차 심사 및 선정(특허청) 통보

최종심사·포상(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심사 후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신지식인' 인증서 등을 수여하고, 우수 신지식인에게는 정부 포상 및 부상금 지급

5. 포상시기 : 2005년 12월 중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재정기획관실 (042-481-5040, 이동걸 사무관) 또는 각 접수 기관에 문의

'디자인 원조 공방' 디지털 분야로 확산

자동차 업계에서 불거진 '디자인 원조' 공방이 디지털 기기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전자는 최근 일본 S사가 자사의 37인치 액정화면(LCD) TV와 유사한 디자인의 프로젝션 TV를 내놓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사 제품은 전면 하단의 유선형 유리 패널 디자인이 LG 전자 제품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전자측은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 두었으나, 우호관계를 깨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증은 가지만 모방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송비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대박을 터트린 '가로본

능' 휴대폰의 경우에도 국내 업체들끼리 베끼기 논란이 붙었다. LG 전자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모방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번에는 팬택계열의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DMB)폰 'T3'가 가로본능을 흉내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로화면 디자인을 먼저 개발했다는 LG 전자는 '의상등록도 2개월 먼저 마쳤지만 삼성전자보다 상품화와 특허 등록에서 한발 늦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GM 대우는 최근 중국 체리 자동차의 '큐큐'(QQ)가 경차 '마티즈'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현지 법원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차 쏘나타의 경우 혼다 어코드의 뒷모습과, 기아차 스포티지는 폴크스바겐 투아렉의 앞모습과 닮은꼴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글로벌 연구개발 아웃소싱 강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개발(R&D) 아웃소싱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연구개발센터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나온 기술 성과물을 현지 국가에 우선 특허 출원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에 특허출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10일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이같은 국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2.8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국제 우선권 주장 활동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R&D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의 R&D 투자가 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국제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99년 2백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백87건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도 1백73건에 달하고 있어 현 추세

라면 지난해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은 세계 1위를 다투는 IT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술별로는 정보기억 기술 분야가 11.4%로 가장 많고 이어 전자사진 기술, 화상통신기술, 이동통신기술, 홈네트워크 기술, 반도체 기술 등이다. 글로벌 R&D 전략 실행을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등 IT 대기업군. 최근 5년간 해외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1백53개 기업 중 활동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점유율이 59.3%에 이른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고급기술의 조달을 위해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아웃소싱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 국가나 기술도 다각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화장품 업계, '지금은 분쟁 중'

화장품업계가 상표권, 특허권 등을 두고 분쟁 중이다. 미샤를 제조·판매하는 에이블씨엔씨와 바이오리츠이 '소나무꽃가루 추출물'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인 데 이어 태평양은 여수시청을 상대로 브랜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바이오리가 지난해 고소한 특허법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바이오리는 지난

2003년 '소나무꽃가루 추출물 용도 특허'를 획득했으나, 에이블씨엔씨가 지난해 제품설명서에서 송화가루 추출물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며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고소한 바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대꾸할 이유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지만, 바이오리츠는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만큼 민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항소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뷰티 어드바이스

여름피부 건강하게, 윤기있게!

특히 여름은 다양한 피부 질환이 나타나는 계절. 그러나 조금만 부지런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미인'으로 얼마든지 가꿀 수 있다.



여드름이 있는 경우

여드름용 비누로 거품을 내어 마사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씻은 다음 마지막에 찬물로 얼굴을 두드려 피부에 긴장감을 준다. 특히 녹차 우려낸 물을 차게 하여 마지막 헹굴 때 사용하면 녹차의 수렴, 진정작용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화장품 선택은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므로 오일프리나 지성용이 무난하다.

민감성 피부 제외한 피부 타입 경우

알코올이 소량 함유된 유연 화장수나 수렴 화장수로 피부를 닦아낸 다음, 유분기가 적고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된 로션을 바른다.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피지 조절 에센스나 수분 에센스, 수분 젤로 주 1~2회 정도 마사지하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외출 30분전에 바르고, SPF 20 이상의 것으로 선택한다.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SPF 30 이상의 제품을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노출 부위를 줄이며 특히 오전 10시~오후 2시는 가장 자외선이 강하므로 이 시간의 외출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여름철 피부 관리 수칙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린 탓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쉬우므로 주 1회 딥 클렌징제나 스크럽 제로 각질을 제거한 뒤 보습 팩이나 비타민 팩을 해주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물이나 과일, 이온음료를 충분히 섭취해 체액과 전해질의 밸런스를 유지해준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얼굴에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은 피부의 건조를 촉진시키므로 피하고, 피부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물을 분사해 주위의 습도를 맞추는 개념으로 건조함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특히 땀이 많이 나면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기므로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고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을 사용하며, 땀을 흘린 후에는 빨리 닦고, 샤워로 땀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이면 더욱 불쾌한 냄새를 방지하려면 손과 발, 겨드랑이, 음모 부위를 항균 비누로 잘 씻도록 하며, 외출하기 전에 탈취제나 발한 억제제를 뿌리는 것도 예방이 된다.